종교문화학보 제18권 제2호 167-181쪽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 2021. 12.

【에세이】

순천 근대기독교 역사와 문화유산

송 오 식*

목 차

Ⅰ. 미국남장로교회와 호남지역선교정책
Ⅱ. 순천 선교의 시작, 순천선교부 설립
Ⅲ. 순천 매산등 기독교 선교마을
Ⅳ. 순천 선교부의 설립자 프레스톤(변요한)
Ⅴ. 순천 선교부의 개척자 로버트 코잇
Ⅵ. 순천 선교마을 조성
Ⅶ. 노고단 수양관 선교마을과 왕시루봉 선교유적
Ⅷ. 순천 의료선교
Ⅸ. 순천선교부의 특징과 향후 한국선교의 과제

Ⅰ. 미국남장로교회와 호남지역선교정책

한국 초기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호남 지역 5개 선교부 중의 하나인 순천지역 선교역사 탐방을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와 기독교수회가 함께 하였다.[1] 전남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글교육을 하는 ISF 선생님들도 동참하였다. 선교지 탐방 중 마침 미리 연락이 되어서 순천 매산고의 교장실에서 정은균 교장선생님(교육학 박사)으로부터 순천지역의 선교역사와 매산고의 가치에 대하여 열정적인 브리핑을 받기도 하였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호남 지역을 군산, 전주, 광주, 목포, 순천 5개 선교부로 나누어 사역을 하였는데, 전주를 시작으로 군산, 목포, 광주에 이어 다섯 번째로 선교부를 설치한 지역이다. 다섯 선교부 중에서도 순천이 가장 많은 선교 유적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순천지역은 다른 곳과 달리 자생적 신앙공동체가 발전하면서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교회를 통해 성장한 기독교계 인사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강했으며, 그만큼 선교사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특징이 있었다.[2]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교문화연구소장

1) 이 글은 종교문화연구소 활동의 일환으로 순천지역 선교유적지를 탐방한 것을 기화로 국내의 순천선교 관련문헌을 요약하고 소개한 글이다.

종교문화연구소장을 맡은 후, 전주, 목포, 광주를 거쳐 순천지역 선교지까지 탐방하였으니 이제 군산지역만 남아 있는 셈이다. 한국에 대한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 1893년 '선교지 분할정책'에 따라 호남지역을 미국 '남장로교회'가 담당하였다. 남장로회는 한국의 중심지인 서울이나 평양이 아니라 훨씬 열악한 곳인 한국의 남쪽을 선호하였고, 그 열악한 땅에서 선교의 열매를 거두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 선교사역을 한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의료와 교육'을 통한 선교사역을 하였다는 점이다. 선교 이론적으로 여기에 복음을 더한 복음 전파와 교육 선교, 그리고 의료 선교라는 '삼각 선교의 원칙(Triangle Method)'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거의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선교활동을 하였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정세의 혼돈 속에 헤매이던 미명의 한국 땅에 근대식 교육과 의료가 시작되었다.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와 교육을 통해서 육체적 질병을 고치고 정신 및 문화적 진보를 이끌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접근을 통하여 신뢰를 쌓은 후 최종적으로 영혼구원까지 나아갔다.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은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하도록 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던 것 같다. 대개 일제 강점기에 선교사들에 의하여 세워진 근대식 학교들은 복음과 함께 이성과 합리성에 입각한 서양문화를 전달하였고, 신사참배 거부 등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독립운동의 산실역할도 감당하였다.

Ⅱ. 순천 선교의 시작, 순천선교부 설립

'하늘의 뜻에 순종한다'는 뜻을 지닌 순천은 인구 30만여명 중 약 30%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며 다른 지역에 복음화율이 현저히 높고, 큰 교회들이 많다. 순천의 선교 기점을 혹자는 1894년 또는 1895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대개 1895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894년 4월 30일 레이놀즈, 드류 선교사가 녹동을 거쳐 벌교를 지나 순천에 도착하여 이틀 간 머물면서 장터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여수를 거쳐 남해에 돌아갔다는 기록이 당시 미 남장로회 선교사 보고서에 있다.[3]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순천은 큰 성벽과 성문, 관청 등이 훌륭하게 축성돼 있었고 이웃에 큰 마을들이 있으므로 순천에 선교부를 세워 전라도의 남동쪽을 맡아

2) 차종순, 순천중앙교회의 태동과 발전, 인문학술 창간호,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2018.10., 12면.
3) 김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고려글방, 1992, 431면.

선교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 후 1904년 목포에 기거하던 배유지 선교사와 오웬 선교사가 광주 양림리에 광주 선교부를세우고 이듬해인 1905년도부터 전남 동부지역을 선교구역으로 하여 선교하기 시작한 것을 순천지역 선교의 첫 출발이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순천지역은 자생적 신앙공동체가 발전하면서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선교사들의 체계적인 선교전략과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복음화율을 높일 수 있었다. 1905년 오웬 선교사가 전남 동부지역을 전담하면서 비로소 순천지방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현 벌교 무만동교회, 율촌 장천 교회가 세워지고 낙안 평촌교회(현 낙안중앙), 순천 가곡교회, 이미교회, 순천 중앙교회 등등이 속속 세워지기 시작했다. 1909년에 프레스턴(J. F. Preston)과 코잇(R. T. Coit)이 순천 일대를 시찰하였을 때, 이 지역에는 이미 97개 교회에서 6천여 명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다고 한다.

순천에 선교부를 설치하는 제안은 1904년에 전킨 선교사의 발의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09년 프레스톤 선교사와 벨 선교사가 광주선교부와의 거리 등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순천에 선교기지를 개설해 줄 것을 선교 본부에 요청하였다. 1910냔 선교회에서 니스벳, 프레스톤, 윌슨, 헤리슨으로 4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교기지 개설위치를 고민하다가 순천이 지역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개설 장소로 결정하였다. 당시 순천은 1909년에 순천읍성에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는데, 토지가격이 저렴한 외곽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였다.

1912년 순천선교부 선교사로 프레스톤, 코잇, 프레트, 리딩햄과 미혼여성인 비거, 듀퓨이, 그리이 등이 결정되고 티몬스 의사 부부도 함께 배정되어 사역을 하게 되었다. 프레스톤과 스와인하트선교사는 광주에서 순천으로 교대로 공사를 감독하던 중, 공사 중이던 1913년 4월 거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코잇과 프레스톤 선교사 가족이 먼저 순천에 이주하였다. 선교부 개소 당시 한국인 교역자 14명, 예배처소 48개소, 세례교인 1184명 일반교인 2459명이었다.

이후 광주지부로부터 독립한 순천지부는 순천지역에 순천매산중고, 순천매산여중·고 등의 유서깊은 교육기관과 지금도 진료소로 사용하고 있는 순천기독교 진료소 등의 의료시설 등을 세우고 이 땅의 영혼들을 품고 같이 웃고, 울고 생활하였다. 낯선 곳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해마다 닥치는 풍토병을 자녀들이 사망하자 풍토병을 피해 거의 1,000 미터 고지인 지리산 노고단에 수양관을 지었고, 6.25전쟁으로 파괴되자 장소를 옮겨 해방 후 왕시루봉에 서양 양식의 근대건물을 짓고 여름에 피해 있기도 하였다.

Ⅲ. 순천 매산등 기독교 선교마을

순천시 매산등에 가면 순천시의 기독교 선교역사를 일거에 알 수 있다. 일명 매산등 선교 스토리텔링이 시작된다. 스토리텔링의 코스는 순천의료원 로타리- 중앙교회(순천읍교회) - 조지왓츠 기념관 - 매산중학교 매산관 – 매산여고, 프레스톤 주택 – 순천기독교 역사발물관 – 코잇주택 – 안력산 의료문화센터(구 격리병동) - 매산고등학교이다. 선교의 초기에 비교적 순천지역의 변두리 지역인 매산지역에 넓은 땅을 사서 거기에 교육기관과 의료시설을 집중적으로 건립하였기 때문이다. 매산중·고와 매산여중과 매산여고, 기독교역사박물관, 순천시기독교진료소와 순천선교의 출발점인 순천읍교회(현 순천중앙교회) 자리와 학교 구내에 있는 순천 선교부의 설립자인 프레스톤(John Fairman Preston, Sr. 한국명 변요한) 주택, 로저스 주택, 순천의 선교 개척자인 코잇(Robert T. Coit, 한국명 고라복) 주택, 조지와츠 기념관 등을 만날 수 있다. 매산등을 올라가면서 곳곳에 있는 선교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순천선교부는 광주 선교부로부터 분립, 개척되었는데 그 역할을 프레스톤이 감당하였다. 순천 선교부는 남장로교 한국선교회가 주관하여 집약적이고 전형적이며 대표적인 지역으로 발전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순천은 기독교의 역사와 문화유산이 잘 간직된 도시로 자리잡았다. 순천 선교의 개척자는 오웬(한국명: 오기원) 선교사이다. 그는 광주선교부 소속으로서 1905년부터 순천 지방을 비롯한 13개 군의지역을 담당했다. 1907년에 한국선교회는 동부지역 복음전도 책임을 공식적으로 오웬선교사에게 맡겼다. 그 때부터 전남 서남부 지역 순회에 집중하면서 또한 전남 동부지역(곡성, 동복, 구례, 순천, 광양, 여수, 돌산, 흥양[4])을 공식적으로 순회 전도하였다. 1909년 4월 3일 서남부 지역인 장흥을 순회 전도하던 중 몸이 아파서 급히 광주로 돌아왔으나 과로로 인한 급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그는 사망하기까지 전도활동에 전념했다.

한국선교회는 전남 동부지역에 새로운 선교부를 개설하기로 공식적으로 1908년 연례회의에서 결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하였다. 한국선교회는 이 안을 시행하면서 프레스톤에게 새 선교부 현장을 조사하고 연구하게 하였다.

오웬의 사망 후 광주선교부는 목포에서 활동 중인 프레스톤을 1909년 5월 광주로 다시 소환하였고, 프레스톤과 코잇 선교사는 그의 업적을 살피고 또한 순천이

4) 고흥의 옛 지명이다.

선교부로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광주에서 순천까지 오랫동안 길을 걸어야 했다. 코잇 선교사는 특히 프레스톤 선교사가 지치고 피곤하여 건강을 해칠까 염려를 했다. 산간 내륙인 광주에서 다른 산악지역인 순천에 이르는 100km의 길은 산악지역을 주로 관통하는 노선으로 5-6개의 험산준령을 넘어야 했다. 2주간의 순회를 마치고 광주로 복귀하는 여정 내내 힘들고 고된 길이었다. 이들은 동부지역 교회를 돌보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순천에 선교부를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Ⅳ. 순천 선교부의 설립자 프레스톤(변요한)

프레스톤(한국명 변요한)은 순선 선교부의 설립자로서 이같은 발전의 기틀을 놓았던 선교사이다.[5] 그는 1875년 4월 30일 미국 플로리다 페르난디나에서 아버지 사무엘 프레스톤 목사와 어머니 아이다 슈트펜 사이에서 태어났다. 1899년에서 1902년까지 프린스턴신학교에서 공부하였는데, 남장로교 목사 선교사들이 주로 컬럼비아나 버지니아 유니온과 같은 남장로교 신학교 출신이었던 것과는 달리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하였다는 점이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903년 4월 18일에 미국 장로교(PCUS) 에노리(Enoree)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2일에 애니 섀논 와일리(1879-1983)와 결혼하였다. 1902년부터 1903년까지 PCUS 해외 선교집행부에서 사역하였다.

결혼 직후인 1902년 9월 29일에 아내와 함께 고향을 떠나, 10월 7일에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는 먼 길을 출발하였다. 일본을 경유하여 1903년 11월 8일에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로 한국 목포에 도착하여, 일제에 의해 강제로 추방되는 1940년까지 37년간 목포, 광주, 순천 세 개의 선교부에서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고 직접 목회하기도 하였고, 전도 사역뿐만 아니라 교육방면에서도 학교의 설립과 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1907년에 그는 새로운 선교사를 모집하고 선교사역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PCUS의 평신도 선교운동에 동참하였다. 1940년에 일제에 의해 추방당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 PCUS 선교사역

5) 프레스턴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https://www.history.pcusa.org/collections/research-tools/ guides-archival-collections/rg-441; 국내문헌으로는 최영근, 미국남장로교 선교사 존 페어맨 프레스톤(John Fairman Preston, Sr.)의 전남지역 선교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48권 1호, 2016.3, 85면 이하 참조.

을 위한 대변인으로서 전국을 다녔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시시피주 폰토톡에 교회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1946년에 은퇴하여 조지아주 Decatur에 거주하였다. 그는 1975년에 아내와 여섯 자녀를 남겨둔 채 100세에 사망하였다.

프레스톤의 기념비는 그가 1907년 4월에 제1대 당회장으로서 섬겼던 순천읍교회(현 순천중앙교회) 앞마당에 세워져 있고 그곳이 순천 선교문화탐방의 출발점이다. 목포(1909-1911), 광주(1909-1911), 순천(1913-1940)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였고 일제에 의해 1940년 추방당하기까지 사역의 대부분인 27년간을 순천선교부에서 활동하였다.

목포에서는 폐쇄 위기에 놓인 남장로교 선교 스테이션(station)을 보강하여 자리를 잡게 하였고, 광주에서는 전남 남부지역을 아우르는 남장로교 선교회의 다섯 번째 스테이션인 순천 스테이션이 분립·개척되는 토대를 만들고 설립과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6]

프레스톤은 1911년에 첫 안식년 휴가차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기간동안 남장로교 한국선교회에 필요한 선교사와 선교자금을 확보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다. 특히 새롭게 개설될 순천 스테이션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프레스톤은 선교회로부터 순천 스테이션과 선교회가 필요로 하는 33명의 선교사 모집의 사명을 받고 그해 말까지 33명의 선교사들이 확보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프레스톤의 안식년 기간이었던 1911년-1912년에 내한한 선교사들의 수가 33명이다. 이 시기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 중에 한국선교회를 이끌어 나간 중요한 선교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스와인하트(Martin L. Swinehart, 서로득) 부부, 린튼(William A. Linton, 인돈), 쉐핑(Elizabeth J. Shepping, 서서평), 도슨(Mary L. Dodson, 도마리아)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특히 프레스톤은 안식년 기간 동안 The Korean Campaign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신학교와 대학교와 교회와 단체와 개인을 만나 선교지원을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더램의 사업가 '조지 와츠'를 만나 순천 선교부 건설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후원받는 성과를 얻었다. 그는 한국선교를 위해 매년 13,000달러의 거금을 기탁하여 순천 선교부가 인력과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프레스톤이 지역순회를 통하여 거둔 성과는 남장로교 선교역사상 가장 극적인 이야기로 기록되었다.[7]

---

6) 스테이션(station)은 각 선교회가 담당하는 지역의 거점으로서 '선교지부'라고도 번역된다.

7) George Thompson Brown, Mission to Korea, 92-95.

프레스톤은 전남지역의 도서(섬) 선교에도 많은 역할을 하였으며, 목포, 광주, 순천에서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고 직접 목회하기도 하였고, 전도사역뿐만 아니라 교육방면에서도 학교의 설립과 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목포의 영흥학교와 정명여학교, 광주의 숭일학교, 순천의 매산학교와 매산여학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또 전남지역 성경학교 설립과 발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여서 이후 호남신학대학교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순천의 남장로교 선교병원이었던 알렉산더 병원(안력산 병원)의 건립과 운영에도 지도력을 발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병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광주의 나병원이 순천 선교부의 경내인 여수로 옮겨와 이곳에 애양원이 설립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8] 또한 전남지역 밖에서도 연합사역의 일환으로 평양의 장로신학교 운영과 교수에도 참여하였고, 선교사 자녀들 교육을 위한 평양외국인학교 운영에 남장로교 선교회 대표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프레스톤은 한국교회를 자발적 헌신이 살아있는 수준 있는 교회로 보았고, 훌륭한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발전하고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한국교회의 발전은 선교사와 한국교회 간의 긴밀한 협력과 신뢰관계에 있고, 선교사의 역할은 한국교회가 선교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53(1),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한국교회의 자치를 지지하였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순천노회의 선교사 회원으로서 노회의 치리와 규율 아래서 사역하였다.

Ⅴ. 순천 선교부의 개척자 로버트 코잇

로버트 코잇(Robert Thornwell Coit: 고라복)은 1909년에 내한하여 1929년까지 20년 동안 주로 순천에서 활동한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이다.[9] 그는 1878년 12월 21일에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에서 태어났다. 1902년 미국 데이비슨대학을 졸업하고 1904년부터 2년 동안 루이빌신학교에서 공부하였다. 1907년 6월 6일 남장로교의 맥클렌버그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그는 즉시 선교본부에 파송을 신청하여 한 달 후에 해외선교사로 임명되었다. 1908년에는 남장로교 해외선교본부의 전

8) 최영근, 앞의 논문, 2016.3, 87-88면.

9) 코잇에 대한 상세는, 송현강, 순천의 개척자 로버트 코잇(Robert T. Coit)의 한국선교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44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6.3, 209면 이하 참조.

진운동(Forward Movement)에 참여하였다. 1908년 세실 우즈와 결혼을 하였고 바로 선교지로 떠나려고 하였으나 선교비의 일시적인 부족으로 출발이 지연되었고,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늦은 1909년 2월 14일 샌프란시스코항에서 몽골리아호를 타고 한 달 간 항행한 끝에 3월 16일 목포에 도착할 수 있었다. 광주선교부에 도착하자마자 순천지역 전담선교사인 오웬이 4월 3일 사망하자, 코잇은 프레스톤과 함께 순천스테이션의 개척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처럼 광주선교부에 의해 순천지역 담당자로 활동하던 오웬이 격무로 급서하자 순천지역부 개척을 위하여 프레스톤과 그가 지명되었다. 코인은 순천선교마을 부지매입부터, 사택과 학교, 병원의 건축과 주변 조경에 이르는 조성공사 전 과정을 책임졌다. 건물신축공사는 1912년 8월부터 시작하여 1913년 4월 무렵에는 4채의 선교사 사택과 병원·시약소 건물 1동, 남학교와 여학교 그리고 사경회를 위한 작은 기숙사가 일괄 완공되었고, 스테이션의 입구에는 400석 규모의 순천읍교회 예배당이 들어섰다. 그는 순천 부임 이전부터 오웬의 사역을 계승하여 전남 동남부 지역을 순회하였고 순천 정착 이후에는 특별히 인구 15만 명의 구례와 광양군을 맡아 30여 개의 교회를 설립·담당하였다.

미국남장로교회 한국선교회는 1913년 4월에 광주선교부에 속한 11명의 선교사들을 순천으로 이주시켜 순천선교부를 개설하였는데 이 때 코잇도 함께 순천으로 이주하였다. 코잇은 순천스테이션 중 동부구역인 구례와 광양을 맡았다. 코잇이 광주에서 순천으로 이주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두 아이가 악성 이질로 목숨을 잃고 임신 중이었던 부인도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 사건으로 수개월 동안 순천 선교가 중단되고 가을에서야 프레스톤 가족과 광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선교사들이 순천으로 내려와 활동한다. 그 후 부인은 건강을 회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 부부는 자녀를 잃은 큰 충격 속에서도 한국 선교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1914년부터 1년 동안의 안식년을 거쳐 1915년 봄 다시 순천으로 복귀하였다. 순천으로 돌아온 코잇은 동부구역의 구례와 광양 순회사역을 하였는데, 동료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가게 되면 그 지역까지 담당하였다. 그가 사역 중 집중한 것은 교회초등교육과 장막전도였다. 특히 아이들의 열정적인 어린이·소요리문답 암송장면을 목도하면서 어린이 신앙교육에 몰두하였다. 코잇 부임 당시의 교회초등학교 학생들이 다시 순천스테이션의 중등학교에서 공부한 후 귀향하여 지역교회와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인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역은 1920년대까지 그의 전담지역인 구례와 광양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코잇은 순천지역이 아닌 구례와 광양 지역 중심의 선교현장에서 일제강점기 하

에서 초등교육만으로는 농촌의 변화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한다. 하나는 한국인들의 중등교육 수요에 부응하여 이제의 지정학교 표준에 맞춘 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이다. 그는 한국교회의 주도권 이양을 위해서라도 양질의 인문적 교육을 받은 고급 인력 배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다른 하나는 실업교육의 활성화였다. 전주의 신흥학교과 광주의 수피아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선교부의 학교들은 상업 또는 농업의 실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제하여 당시의 인력 수급에 대처하자는 것이다. 또 여성들에게 선교부와 관련을 맺고 있는 각급 학교의 문호를 더욱 개방하여 지성적인 지도력을 갖는 여성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10]

그러던 중 1929년 2월 독감에 걸려 병세가 나아지지 않자 그 해 10월 도미하여 볼티모어의 존스홉킨스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요양 중에 1932년 5월 12일 노스캐롤라이나 애시빌에서 사망하였다.

Ⅵ. 순천 선교마을 조성

순천은 이미 1909년에 순천읍성에 교회가 설립되어 교세를 확장하고 있었다. 중심지역에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토지구입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프레스톤, 벨, 윌슨 등이 은행에서 선교자금을 차용하여 광주 북문안교회의 김윤수와 순천의 김억평으로 하여금 선교부지를 매입케 하였다.[11] 순천의 외곽지역인 매곡동 언덕에 상당히 넓은 토지인 12,238평을 매입하여 선교마을(Mission compound)로 삼고, 사랑채 2동과 선교사 저택 2동, 학교와 진료소 각1동 등 석조 건물을 건축하였다. 1911년 순천선교부에서 사역할 선교사 명단이 확정되었는데, 광주선교부 소속 프레스톤 부부, 코잇부부, 여성과 어린이 담당 선교사 비거(Meta L. Bigger, 백미다) 외에 입국할 신입선교사들도 있었다. 1912년 봄 매산 언덕에 1,5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매산 언덕 뒷산에는 화강암이 많아 직접 화강석을 캐내어 건축에 활용하였다. 건자재 일부는 미국에서 수입하였다. 선교마을은 크게 4구역으로 나뉘어 조성되었다. 교회구역, 의료구역(병원, 간호사숙소 등), 교육구역(남학교와 기숙사,여학교와 기숙사), 주거구역(선교사저택 2개, 여성독신자 주택) 등이 조성되었다. 선

10) Rev. R. T. Coit, A Field of opportunity, The Presbyterian Surbey, July 1927, 280.

11) 순천 선교마을에 대한 상세는, 우승환·남호현, 미국 남장로회 순천선교기지 선교마을들, 인문학술 창간호,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2018.10., 69면 이하 참조.

교마을 건축은 건축시작 후 1년 만에 완성하여 특이한 사례가 되었다. 이는 이전의 4개 선교부 개설 경험이 축적된 결과였다.

순천선교부가 있는 매산 언덕 선교마을의 기독교 건축물과 기독교 문화 유산은 사료적 가치로서도 중요하다. 순천의 선교마을은 계획된 마스터플랜에 의해 조성되어 공간배치가 탁월하였다.[12] 선교마을의 건축물 중 상당수가 소실되었지만 아직도 일부는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다. 매산여고 교내에 있는 프레스톤 주택(1913), 코잇주택(1913), 로저스주택(1913), 어린이학교(1925), 조지와츠기념관(1929), 매산중학교 매산관(1930), 격리병동으로 사용되었던 안력산 의료문화센터(1932) 등만이 남아 있다.

매산학교와 매산여학교는 두 차례 자진 폐교하는 진기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10년 3월에 미국 선교사 프레스톤과 코잇(한국명: 고라복) 목사가 금곡동 사숙에서 개교하였다가 1916년 6월에 조선총독부에서 성경정과 교수를 허가하지 않자 자진 폐교하였고, 그 후 두 번째로 일제의 신사참여 강요에 불복하고 1937년 9월에 자진 폐교하였다. 이렇게 자진폐교 하였다는 점이 놀라운 일이다. 선교사들은 단순히 복음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근대의식과 함께 항일의식과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 결국 프레스톤은 순천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하지 못하고 1940년에 일제에 추방되고 만다. 그 후 해방 후인 1946년에야 다시 매산중학교를 정식으로 개교하게 된다. 한국교회사에서 치욕스러운 점 중의 하나가 1938년 9월 10일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이루어진 신사참배 결의인데 순천지역 기독교의 결기를 느낄 수 있는 처사이다.

순천선교부의 선교마을은 일제강점기에는 순천 매상등의 선교마을, 지리산 노고단의 수양관마을, 여수 애양리의 공동체마을이 조성되었고, 광복 이후에는 순천 조례동의 순천 기독결핵재활원, 호두리의 로이스 보양원, 지리산 왕시루봉의 수양관 등이 독립된 마을로 건립되었다. 선교마을은 건립시기도 다르지만 마을이 조성된 배경과 목적도 다르다. 공통점은 일관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실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Ⅶ. 노고단 수양관 선교마을과 왕시루봉 선교유적

한국 개신교 선교 초기 방문한 선교사들에게 근대화 전의 생활환경, 위생 상태

12) 임희모, 미국남장로교 한국선교회의 순천선교부 개설 배경 연구 1892년-1912년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53(1), 2021.3, 247-276면 참조.

는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풍토병 전염병의 창궐, 선교업무의 중압감 등 피로 누적으로 인한 질병과 이로 인한 사망은 선교활동 자체를 위협했다. 서울, 평양, 선천, 대구 등 대도시 선교부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질이나 발진티프스, 수막염, 천연두 등으로 큰 희생을 치루어야 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 자녀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서 선교 사역의 고통보다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도 하였다.

미국 남장로회 선교부는 1920년에 '지리산 임시위원회'를 조직하고 1921년 '지리산 임시 위원회'보고서를 제출한다. 1922년 6월 크레인과 프레스톤이 동경제국대학 연습림으로부터 휴대용 천막과 응급시설 설치를 묵인 받고, 크레인이 7월부터 천막 7동과 목조 건물 6동을 건축하여 선교사와 가족 29명을 수용한다. 1922년 여름 리조트 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에 스와인하트를 선임하고 1924년 99년간 임대가 여의치 않으면 50년간 임대를 요청하기로 하고 협상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한다. 1925년 3월 동경제국대학은 구례군 내산면 좌사리 일부를 만 10년간 연 33원 63전의 대여로 총독부의 승인을 요청하고 같은 해 7월 조선총독부 승인을 거쳐 8월에 허가 지령을 교부받는다. 1935년 임대기간 만료 시점에 선교회와 조선총독부의 관계 악화에 이어서 1940년 대부분의 선교사 본국으로 철수하자 관리가 불가능해졌고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파괴되고 폐허화 되었다. 이른바 오늘날 파괴된 채로 아주 일부만 남아 있는 노고단유적이다.

해방 전에 본국으로 돌아갔던 일부 선교사들이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 중 전쟁 직후 귀환한 린튼과 하퍼 선교사는 해방 전에 선교사들이 사용했던 노고단 수양관이 복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다른 장소에 수양관 재건을 모색하였다. 이후 1950년대 말부터 수양관 후보지를 탐색하던 린튼과 하퍼 선교사는 수양관 후보지로 구례군 토지면 구산리 왕시루봉을 결정한다. 1961년 여름부터 교회와 목조주택, 테니스장, 수영장, 천막 부지를 만들고 1962년 7월 동토지가 서울대 연습림으로 지정되어 있던 관계로 서울대학교와 건물 소유권은 대학이 갖고 학생들과 공동사용을 전제로 협약을 맺고 산림관리권을 부여받는다. 공사용 골재는 개울에서 모래와 자갈을 채취하거나 연못 굴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재를 파쇄해서 사용하고 시멘트와 순천에서 제작한 거푸집을 옮겨 콘크리트 구조물을 현장 제작해 건축한다. 노고단에서 사라진 지리산 수양관은 왕시루봉으로 옮겨 부활되었다. 그러나 노고단 수양관에 비하면 규모나 시설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13]

13)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의 상세에 대해서는, 이만열,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과 문화유산 보전, 종교문화학보 제17권 제1호,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 2020.6, 205면 이하 참조.

지리산의 선교사 유적들은, 해방 전에는 노고단을 중심으로 휴양과 성경번역 및 에큐메니컬 활동에 활용되었지만, 해방 후에는 왕시루봉을 중심으로 휴양과 에큐메니컬 활동을 위해 활용되었다. 특히 풍토병 극복과 휴양을 위해 지리산 왕시루봉 휴양지는 그 독특한 사명을 감당해 왔다. 현재 남아 있는 왕시루봉의 유적은 60여년 남짓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적, 건축학적, 종교적 가치가 높다.

Ⅷ. 순천 의료선교

순천에서의 의료사역은 티몬스(H.L. Timmons, 김로라) 의사와 그리어(A.L. Greer) 간호사가 1913년 건축감독관 사무실로 사용하던 4평이 채 안 되는 임시 오두막에서 시작했다. 이질에 감염된 코잇 선교사 가족의 치료가 계기가 되었다. 조금씩 환자가 늘어나자 이듬해 14평 정도의 진료소(순천병원)를 새로 지어 옮겼지만, 환자들을 치료하기에 협소하긴 마찬가지였다. 이 작은 장소에서 티몬스 선교사는 온갖 수술을 다 했다. 수술이 끝난 사람들은 마루에 눕혀 놓았는데, 진료소에 오는 환자들은 그들을 건너뛰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첫 7개월 동안 67명이 수술을 받았고, 3814명이 치료를 받았다. 이후 1916년 순천읍성 언덕에 의료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안력산(알렉산더)병원이 완성되었다.

안력산의 원래 명칭인 ‘알렉산더’는 군산 구암병원에서 의사로 활동했던 의료선교사 ‘존 A. 알렉산더’의 이름에서 붙여졌다. 그는 1902년 12월 갓 스물일곱을 넘긴 나이에 한국에 왔다. 프린스턴과 콜롬비아 의대를 나온 그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켄터키 대부호의 아들이었다. 입원실 35개를 갖춘 안력산 병원은 당시 서울의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서양식 종합병원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제의 태평양 전쟁 발발로 로제세 의사가 일제 추방령으로 본국으로 소환되면서 1916년부터 운영되어온 병원은 1940년 11월 폐지되고 말았다. 미국 선교사들이 떠나고 남은 건물은 매산학교 건물로 사용되다 1991년 화재로 소실돼 현재 부속격리병동만 남아있다. 2018년 1월, 이 격리병동이 102년 만에 지역주민을 위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로 복원돼 재개관됐다. 복원된 안력산의료문화센터는 순천을 비롯한 호남, 대한민국의 의료역사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과 의료봉사실, 문화공간으로 꾸며졌다.

순천 의료선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휴(Hugh MacIntyre Linton)는 유아기 때 잠시 순천에서 보낸 적이 있으며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다. 아버지 윌리엄 린턴

은 1921년 21세 때 한구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이후 48년간 의료, 교육 선교활동을 하였다. 차송 당시 윌리암 린튼은 한국에 온 최연소 선교사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 해군대위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는 종전 후 1953년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선교와 의료봉사에 나섰다. 등대선교회를 설립하여 전라남도 순천을 중심으로 도서 지역에 6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으며, 그의 아내 인애자(Lois Elizabeth Flowers Linton)와 함께 30여년간 결핵퇴치 활동에도 매진하여, 1960년 순천 일대에 홍수가 나고 결핵이 크게 유행하게 되자, 순천기독치료소를 설립하여 결핵치료에 나서고, 아내 인애자는 순천결핵재활원(현 순천기독결핵요양원)을 설립하여 은퇴할 때까지 결핵퇴치를 위해 헌신하였다. 휴 린튼의 사후에도 결핵재활원 봉사를 꾸준히 한 공로로 1996년 호암상과 국ㅁ니훈장 목련장을 수상하였다.

1983년 10월 10일을 기하여 선교와 목회 분야 은퇴를 선언하여 결국 서울을 떠나 전라남도 순천 승평 원도심촌에 낙향을 한 그는 6개월 후 1984년 4월, 전남 순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버스와 충돌 사고로 의식을 잃게 되었다. 앰뷸런스 차량이 없어 광주기독병원까지 택시로 이송하는 도중 숨졌으며, 이는 사후 그의 막내아들인 '인요한'이 한국형 구급차를 개발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의 아들 인요한은 연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이며, 4대째 한국땅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Ⅸ. 순천선교부의 특징과 향후 한국선교의 과제

순천 스테이션은 남장로교회 한국선교회의 선교가 집약적으로 나타난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지역으로 발전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순천은 기독교의 역사와 문화유산이 잘 간직된 도시로 자리잡았다. 순천지부 선교사들은 프레스톤과 코잇은 복음선교, 티몬스와 그리어는 의료선교, 크레인과 듀퓨이는 교육선교, 비거는 부인전도를 각각 분담해서 활동함으로써 효율적인 선교를 할 수 있었다.

순천의 기독교는 개인구원에만 몰두하지 않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회와 역사 앞에 책임을 지고자 했다. 일제 신사참배 반대로 이기풍, 양용근 목사의 순교와 박용희, 손양원, 김정복, 김상두, 김형제, 오석주, 나덕환, 선재련, 김순배, 김형모, 조상학 목사, 황두연, 박창규, 선춘근, 김원식 장로 등이 대거 체포 구금돼 장기간 옥중 투쟁을 하였다. 해방 직후 여순사건으로 인한 영흥교회 김병준 장로와 윤형근 윤순근 성도, 손양원 목사의 아들 동인 동신 군의 순교, 6ㆍ25 한국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의 피를 흘린 곳으로서 기독교정신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되는 일이다. 또한 해방 이후에도 수많은 기독지도자들이 배출되었으며 교계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였다.

미국 남장로회의 순천 선교기지는 선교 이론적으로 복음 전파와 교육 선교, 그리고 의료 선교라는 '삼각 선교의 원칙(Triangle Method)'을 잘 구현해 내었고 복음의 기치와 함께 청년들에게 역사관과 민족정신을 고양시켰다. 순천 선교부의 건축이나 활동은 1930년대 중반 신사참배 반대로 선교부 교육기관 폐교를 결정한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일본의 전쟁 참여로 선교부의 기능은 잠시 멈추지만 광복과 함께 교육선교, 의료선교 등이 다시 회복되고 지속되었다. 순천선교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선교정책과 사역들이 오늘날 순천을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선교마을은 종합계획을 통해 구축된 한국 최초의 선교기지로 선교정책과 그 필요에 따라 '선교기지 마을', '질병 공동체 마을', '수양관 마을' 등의 다양한 서양식 마을을 조성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조성 당시 목적에 따라 독자적으로 조성된 선교기지 마을들은 지금까지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보전되고 있다.

2만여명이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초창기 한국선교에 대한 선교사들의 선교방향과 자세를 살펴보고 연구함으로써 오늘날 한국선교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성호, 미국 남장로회의 호남선교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49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8.9.

김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고려글방, 1992, 431면.

송현강, 순천의 개척자 로버트 코잇(Robert T. Coit)의 한국선교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44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6.3.

우승환·남호현, 미국 남장로회 순천선교기지 선교마을들, 인문학술 창간호,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2018.10.

이만열,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과 문화유산 보전, 종교문화학보 제17권 제1호,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 2020.6.

임희모, 미국남장로교 한국선교회의 순천선교부 개설 배경 연구 1892년-1912년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53(1), 2021.3.

차종순, 순천중앙교회의 태동과 발전, 인문학술 창간호,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2018.10.

최영근, 미국남장로교 선교사 존 페어맨 프레스톤(John Fairman Preston, Sr.)의 전남지역 선교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48권 1호, 2016.3.

Rev. R. T. Coit, A Field of opportunity, The Presbyterian Surbey, July 1927.

https://www.history.pcusa.org/collections/research-tools/guides-archival-collections/rg-441.